

# 세계 주류시장 동향

## 코냑

기획조사팀

2008년 세계 코냑소비량은 1,153만상자(1상자=9Liter)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7년에 비해 6.2% 감소한 양이다. 이와 같은 하락세는 2009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 코냑 소비량은 지난 2001년 이래 2007년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큰 타격을 입고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코냑소비 상위 10개 국가 중 싱가포르(14%증가), 중국(6.8%증가), 노르웨이(0.4%증가)를 제외한 7개국가의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14.8%감소), 프랑스(16.6%감소), 핀란드(15.7%)에서는 코냑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8 세계 상위 10개 코냑 제조사

단위 : 백만상자(1상자 = 9Liter)

순위	국 가 명	소비량					증감	
		2000	2005	2006	2007	2008	06-07	07-08
1	미 국	3.05	4.02	4.08	4.35	3.71	6.5%	-14.8%
2	싱가포르	0.39	1.08	1.35	1.43	1.64	6.4%	14.0%
3	중 국	0.01	0.41	0.52	0.89	0.96	72.3%	6.8%
4	영 국	0.84	0.98	1.00	0.90	0.82	-9.9%	-9.2%
5	독 일	0.56	0.64	0.66	0.58	0.56	-12.2%	-3.3%
상위5개국 소계		4.85	7.13	7.62	8.16	7.68	7.2%	-5.9%
6	프 랑 스	0.62	0.62	0.54	0.52	0.43	-3.0%	-16.6%
7	노르웨이	0.27	0.31	0.29	0.32	0.32	8.6%	0.4%
8	핀 란 드	0.25	0.32	0.32	0.32	0.27	0.9%	-15.7%
9	러 시 아	0.08	0.32	0.37	0.28	0.26	-25.7%	-6.5%
10	네덜란드	0.22	0.17	0.22	0.25	0.23	18.1%	-9.4%
상위10개국 소계		6.28	8.87	9.35	9.85	9.19	5.4%	-6.7%
기타국가		2.81	2.14	2.46	2.43	2.33	-1.0%	-4.1%
총 계		9.10	11.01	11.81	12.29	11.53	4.1%	-6.2%

※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코냑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재수출됨

※ 자료 : Impact Databank

그러나 세계 코냑시장에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냑제조사에 희망적인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V.S.O.P 및 X.O등급의 고가 코냑이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는 고급코냑(V.S.O.P이상급)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코냑 수출량 중 V.S.O.P이상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3%를 기록했다. V.S.O.P이상급 코냑이 V.S급에 비해 더 많이 수출된 것은 2007년이 처음이었으며, 그 추세는 2009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 2008 세계 상위 10개 코냑제품

단위 : 1,000상자(1상자 = 9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점유율
			2006	2007	2008	07-08	2008
1	Hennessy	Moët-Hennessy(LVMH)	4,255	4,660	4,425	-5.0%	40.9%
2	Remy Martin	Remy Cointreau	1,790	1,850	1,890	2.2%	17.5%
3	Martell	Martell & Co(Pernod Ricard)	1,460	1,610	1,540	-4.3%	14.2%
4	Courvoisier	Courvoisier(Beam Global)	1,140	1,165	1,190	2.3%	11.0%
5	Camus	Camus La Grande Marque	300	300	300	-0.5%	2.8%
상위5개 제품 소계			8,945	9,585	9,345	-2.5%	86.4%
6	Bisquit	Renault Bisquit(Distell)	150	150	150	1.0%	1.4%
7	Otard	Chateau de Cognac(Bacardi)	115	120	120	-	1.1%
8	Polignac	Cognac Prince Hubert	95	95	90	4.5%	0.8%
9	Renault	Renault Bisquit(Distell)	80	80	80	-	0.7%
10	Salignac	L de Salignac & Co(Beam Global)	76	76	70	7.0%	0.6%
상위10개제품 소계			9,460	10,105	9,855	-2.4%	91.1%
기타제품			1,115	1,050	970	-7.8%	8.9%
총 계			10,575	11,150	10,825	-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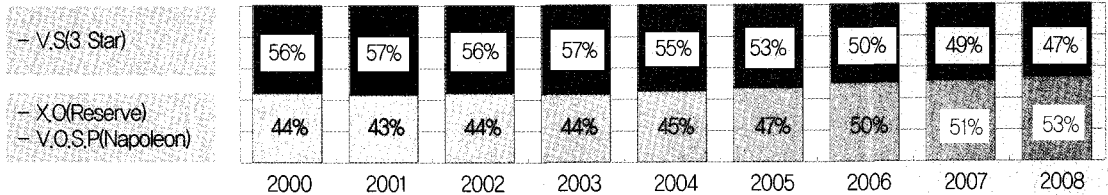
※ 자료 : Impact Databank

제품별로 보면 부동의 1위 제품인 '헤네시(Hennessy)'가 전 세계 코냑 시장점유율 40.9%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헤네시는 2008년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5% 감소하였다. 헤네시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서의 판매부진이 헤네시 판매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헤네시의 경우 총 판매량의 절반가량이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반면 세계 2위 코냑제품인 '레미 마르탱(Remy Martin)'과 4위인 '쿠브와제(Courvoisier)'는 판매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의 선전이 타 제품들의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위를 기록한 '마르텔(Martell)'의 경우 2008년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4.3% 감소하였으나,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V.S.O.P이상 등급의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매출액 부분에서는 12%의 신장을 기록했다. 그 외에 코냑 판매 5, 6위는 각각 '까뮤(Camus)'와 '비스키(Bisquit)'가 차지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디스텔(Distell)사는 비스키, '르노(Renault)' 등을 생산하는 르노 비스키(Renault Bisquit)사를 2009년초 4,400만 달러에 페르노리카(Pernod Ricard)로부터 인수하였다.

### 코냑 등급별 수출량 비중



### 코냑등급분류

명 칭	특 징
V.S. (Very Special) 또는 *** (3 star)	최소 2년이상 숙성된 코냑
V.S.O.P. (Very Superior Old Pale) 또는 Reserve	최소 4년이상 숙성된 코냑
X.O (Extra Old) 또는 Napoléon	최소 6년이상 숙성된 코냑

※ 이상은 코냑사무국(BNIC)에서 분류한 일반적인 코냑 숙성년도기준으로 일부 코냑제조사에서는 독자적으로 숙성연수를 부여하고 있음

### 미국

세계 1위 코냑시장인 미국에서는 2008년 총 371만 상자의 코냑이 판매되었으며, 이는 2007년에 비해 14.8%나 감소한 양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세계 1위 코냑 소비국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실제로 2위인 싱가포르(대부분이 중국으로 재수출)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코냑이 판매되고 있다.

미국내 판매 1위 코냑은 헤네시이며, 레미 마르탱, 꾸브와제, 마르텔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8년 미국내 상위 4개 코냑 제품의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마르텔의 경우 2007년에 비해 44.1%나 판매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마르텔측에서는 고가위주의 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발생한 소비량 감소라고 밝히고 있다.

### 2008 미국 상위 4개 코냑제품

단위 : 1,000상자(1상자 = 9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6	2007	2008	07-08
1	Hennessy	Moët-Hennessy(LVMH)	2,230	2,300	2,160	2,160
2	Remy Martin	Remy Cointreau	690	700	650	650
3	Courvoisier	Courvoisier(Beam Global)	470	465	440	440
4	Martell	Martell & Co(Pernod Ricard)	200	170	95	95
상위4개 제품 소계			3,590	3,635	3,345	3,345

※ 자료 : Impact Databank

## 중국

지난 2000년 1만 상자에 불과했던 중국의 코냑소비량은 2008년 100만 상자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싱가포르 및 홍콩에서 재수입되는 양까지 따질 경우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은 2위 코냑 소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중국의 코냑 소비는 2008년에 들어 다소 수그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코냑이 소비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코냑은 아직 대중적인 술은 아니다. 대부분의 소비는 중상층 이상 특히 사업가들 사이에서 선물용 등으로 소비되고 있는 편이다, 물론 이는 향후 중국의 코냑 시장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고급코냑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페르노리카 차이나의 마르텔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 유럽

유럽의 주요 코냑소비국에서는 코냑의 소비가 줄고 있다. 2008년 유럽 3대 코냑 소비국인 영국(판매량 세계 4위), 독일(5위), 프랑스(6위) 3개국 모두 소비량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2007년에 비해 큰 폭(16.6%감소)으로 감소하였다. 상위 10개 코냑 소비국가중 소비가 증가한 유럽국가는 노르웨이가 유일하며, 그나마도 소폭(0.4%증가)만 증가했을 뿐이다. 한때 신흥 주류시장으로 부각되며 코냑 소비 역시 크게 증가했던 러시아의 경우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코냑 소비가 2년째 감소하고 있다.

비록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코냑시장이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코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미하고 보유하고 싶어하는 주류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코냑 제조사들은 세계 경기가 회복됨과 함께 코냑 소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으며, 그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 'Impact' 지 2009년 10-11월호